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

潙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③

所恨 同生像季 去聖悠遙
소한 동생상계 거성시요
佛法生疎 人多懈怠
불법생소 인다해태

或紘輕言 便責後生 無禮
혹피경언 변책후생 무례
嗔心忿起 言語駭人
진심분기 언어해인
一朝 臥疾在牀 衆苦煎逼
일조 와질재상 중고영전핍박
曉夕思討 心裡恍惶 前路茫茫 未知何往
효석사촌 심리회황 전로망망 미지하왕
從茲 始知悔過 臨渴掘井 奚爲
종자 시지회과 임갈굴정 해위
自限早不豫修 年晚多諸過咎
자한조불예수 년만다제과구
臨行 抓耳 搔腮 悔惶
임행 취괵 파포장황

略伸省見 以曉後來
약신관견 이효후래
若不發明 誠難輪道
약불견긍 성난윤과

한탄스러운 것은 그대들이나 나나 상법·말법 시대에 태어난 것이라 부처님 멸도에 드신지 오래이며 불법은 생소하고 사람들은 많이 게으르매 간략하게나마 좁은 소견 펼쳐서 후학들을 깨우쳐 보고자 하노라

만약 '내로다' 뽐내는 생각 없애지 아니하면 참으로 윤회의 바퀴돌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夫出家者 發足超方 心形異俗
부출가자 발족초방 심형이속
紹隆聖種 摧滅魔軍 用報四恩 拔濟三有
소륭성종 진섭마군 용보사은 발제삼유
若不如此 濫則僧倫
약불여차 람측승륜
言行荒疎 虛霑信施
언행황소 허점신시
昔年行處 寸步不移 恍忽一生 將何慰恃
석년행처 촌보불이 황홀일생 장하빙시
況乃堂堂僧相 容貌可觀
황내당당승상 용모가관
皆是宿植善根 感斯異報
개시숙식선근 감사이보

"사욕·번뇌다스려 인천삼유 구제하라"
뽐내는생각 있으면 윤회굴레 못면해

죽음을 맞아서 몸 부림치며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모르는도다.

鞍穿雀飛 識心隨業
곡찬작비 식심수업
如人負債 强者先牽 心緒多端 重處偏墜
여인부채 강자선견 심서다단 중처편추
無常殺鬼 念念不停 命不可延 時不可待
무상살귀 념념부정 명불가연 시불가대
人天三有 應未免之
인천삼유 응미면지
如是受身 非論劫數
여시수신 비론겁수
感傷頻頻 哀哉切心 豈可緘言 遞相警策
감상탄아 애재절심 기가함언 체상경책

명주비단 뚫어져 참새가 날아가니(업식이 몸을 버리고 떠나가니) 식심이 업에 이끌리는 것이 마치 빚진 사람이 강한 자에게 먼저 끌려가듯이 마음의 실마리는 가닥가닥 수 없이 많건만 (생전에) 무겁게 마음 둔 자리로 (한이 맺힌 자리를 말함) 치우쳐 떨어지게 된다.

무상살귀(식심이 찰나찰나로 변함을 뜻함)가 생각 생각마다 머물지 않나니 명은 가히 늘리지 못하며 때는 기다리지 않는지라

욕계·색계·무색계(인천 삼유)를 돌며 다시 태어남을 면치 못한다.

이와같이 몸 바꿔 돌고 돈 세월, 그 겁수는 논할 수도 없도다.

가슴 쓰리고 한 숨 짓고 애간장 끓이나니 어찌 입을 다물고서 서로 경책할 수 있으리오.

便懸端然拱手 不責寸陰
변의단연공수 불귀촌음
事業不勤 功果 無因克就
사업불근 공과 무인극취
豈過一生空過 抑亦來業無裨
기과일생공과 억역래업무비

무릇 출가한 이는 발길을 옮겨 세상을 뛰어넘고 마음과 모양새(행동거지)도 세속과 달리하며 불법을 이어 융성케하고 온갖 마장경계를 다스려 조복을 받으며 (나아가) 네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인천 삼유를 남김없이 구제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같이 하지 아니하면 외람되게도 승려 무리에 끼어들었을 뿐 말이 거칠고 행주좌와 위의가 가즈런하지 못하면서 헛되이 신심어린 시주만 나눠갖고 옛 성현들이 갈고 닦은 자리에는 촌보도 다가가지 않으면서 정신없이 한 생에 보내니 장차 무엇을 의지하고 믿을 것인가. 그럼에도 삭발염의한 겉모습만은 당당하여 가히 불만한지라.

이는 다 숙생에 선근을 심어 이에 감응한 과보인데.

(거기에만) 의지하여 손을 잡아매고(닦을 생각 않고) 촌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끝내 불과를 이룰 인연이 없으매

어찌 한평생 헛되이 보내리오. 그래서야 다가올 업연 또한 그대를 돕지 못하리라.

龍 眼

지상 법석

입만 '아미타불' 외우고

수산스님
〈염불선원 조실〉

약 력
- 1906. 2. 20 경남 生
- 52년 효봉스님 은사로 득도
- 56년 비구계 수지
- 86년 불교노인대학설립
- 저서로 〈정토지남〉〈수행요집〉〈염불법문집〉 등 다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시방삼세 부처님 중 아미타불 이제 일이시라.

구품 연대로 중생을 제도하사 위엄과 덕이 한량 없으시다.

제가 이제 크게 귀의하여 몸과 입과 뜻을 참회하오며 지은바 복과 선은 지극한 정성으로 정토에 회향합니다.

염불하는 사람과 한가지로 극락에 왕생하여 부처님을 뵈옵고 생사를 요하며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정성으로 정토회향

우리 인생은 생사고의 어둠에서 벗어나려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오늘 사부대중에게 생사대사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삼계 윤회가 우물 물 퍼내는 것과 같이 백겁 천겁 만겁 미지수 겁을 지내도다. 그러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서 제도할 것인가'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삼계라는 것은 욕·색·무색계인데 이 사바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여섯 하늘을 얹어서 욕계(欲界)-욕심내는 세계라 하고, 그 위에 색계(色界)- 욕심은 없어도 물체, 즉 몸뚱이가 있는 세계라고 하는 빛깔이 있는 세계라 하고, 그 위에 또 네 하늘은 무색계(無色界)라 하여 몸뚱이가 없고 정신세계만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하늘 복은 인간에 비하면 여러 만배입니다.

수명이 길고 복이 많은 것도 복진결과라. 복이 다하면 악도에 떨어지고 삼계가 불집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여기 죽어 저기 나고, 나면 다시 죽고 생사고통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삼악도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데 지옥은 들어가게 되면 만사만생이라.

지옥에서는 하루동안에 만번 죽이고 만번 살리는 고통을 받는데 칼로 찔러 죽이고, 맷돌로 갈아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기름관에 삶아 죽이고, 허물 배서 죽이고, 독사가 물어 죽이고, 얼음얼어 죽이고, 천가지 만가지가 전부 죽이는 기구뿐으로 죽이고 나면 이상한 바람이 불어 다시 송장이 되어 살아난다고 합니다.

살아나면 또 죽이고, 만번 죽이는데, 지옥은 워낙 헤가 길어 인간 육십겁이 지옥의 일주야라 하니 전부 죽이는 기구뿐이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는가.

사실 우리는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면 또 「아귀」가 돼 그 고통을 받는데 그 아귀는 몸은 집통만 하면서 입은 바늘구멍만 해서 물 한방울이 잘 안 넘어가고, 설령 물이 있다 하더라도 먹으려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또 밥이 있어 밥을 먹으려 하면 금방 밥이 불로 변하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항상 배가 고프고 목은 말라 있으며 업태우는 불이 전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귀는 항상 울고 있지, 한시라도 편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귀업을 다 받고나면 이제 「축생, 짐승」이 돼 사는데 짐승은 지옥에 비하면 신선이나,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습니다. 짐승끼리도 서로 잡아먹는 섭리가 있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인간」세상도 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 고통을 못 면하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우리 대중은 이런 고통을 받으며 천겁 만겁을 지내왔는데, 그 천겁 만겁의 일겁은 만년도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일겁도 모자라서 미진수겁에 걸쳐 고통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불법은 '죽지않는 법'

그러나 다행이 우리는 전생에 복을 쌓아 지금 인간이 돼 이 좋은 불법을 만났으니 이것은 무엇보다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사를 해탈한 법, 죽지 않는 법이라.

이 불법을 잘 닦아 부처님을 잘 따라 수행하면 참선에 견성을 하던지, 극락세계를 가던지,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않고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생사 윤회의 수레바퀴에 빠져 지옥에 가든지, 악도에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여러 억천만겁으로 고생해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제도했겠습니까.

금생에 잘 못해서 실수하면 일책천책이라, 한번 미끌어지면 천번가번 미끌어지는 것. 한번 잘못해 악도에 떨어지면 천번만번 떨어지게 돼 헤맵니다.

그러니 금생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생사대사를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이 팔만사천 법문에 많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생사해탈 법입니다.

모두 염불해서 삼매를 얻고, 참선해서 견성하고, 복도 짓고해서 이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모두 그런 법문입니다.

근데 그 법문을 총괄해서 말하면 자력문과 타력문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하고 수행해서 깨닫는 것 입니다.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3月/ 2, 7, 9, 14, 16, 21, 23, 28, 30

대만 5日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3月/1, 8, 15, 22, 29
스리랑카 6日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3月/3, 10, 17, 24, 31
미얀마·태국 8日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3月/3, 10, 17, 24, 31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日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3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방콕·푸켓 5日 ₩649,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3月/4, 11, 18, 25
동남아 3국 5日 ₩655,000	서울-싱가폴(4박)-바탐·조호바루-서울 3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방콕·푸켓·싱가폴 6日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3月/7, 14, 21, 28
하와이 5日 ₩649,000(일급) ₩699,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3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미국 서부 버스 7日 ₩899,000	서울-LA(1박)-홀랙스텝(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 3月/6, 13, 20, 27
유럽 5개국 10日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3月/2, 9, 16, 23, 30
사이판 4日 ₩549,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3月/2, 5, 9, 12, 16, 19, 23, 26, 30
괌 4日 ₩549,000	서울-괌(3박)-서울 3月/2, 5, 9, 12, 16, 19, 23, 26, 30
호주·뉴질랜드 8日 ₩1,27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3月/2, 7, 9, 14, 16, 21, 23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日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日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전 일정 비디오 촬영 무료증정-	
대만(화련)	4日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日	₩670,000
	5日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日	₩670,000
	5日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日	₩649,000(일급) ₩699,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日	₩860,000
	6日	₩89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불교 성지 순례 전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代)